



제51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성료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문별 수상작·초대작가전 개최
부산문화회관·부산시청서 전시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1회 부산미술대전 수상자들과 부산미술협회 임원, 시상 내빈들 기념사진.

사)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고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주관하는 제51회 부산미술대전의 일반부문은 2025년 10월 30일, 31일에 걸쳐 1차 작품심사와 11월 19일 2차 작품 심사를 나누어 진행되었다. 올해 공모전은 한국화, 서양화(구상·비구상)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서예, 학술평론, 영상설치, 문인화, 수채화, 민화·불화 등 12개 부문에서 총 1,483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대상작을 포함한 총 806점이 입상했다.

실물 작품 심사는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서예부문 대상에는 김정희 작가의 한글서예작품 <뱃머리에서>, 문인화부문은 이수진 작가의 작품 <묵죽>이 차지했다. 각 부문 우수상에는 △민화·불화부문 최인선 △서양화(구상)부문 박미경 △서양화(비구상)부문 장명희 △디자인부문 김혜림, 황예빈 △공예(도자)부문 서유리, 공예(목질)부문 김현수 △한국화부문 이성기 △수채화부문 성현숙 작가가 선정되

었으며, 이외에도 특별상 5점, 특선 107점, 입선 680점의 수상작을 입상작으로 결정했다. 한편, 올해 통합대상은 부산미술대전 운영기준에 따라 취소되었다.

제51회 부산미술대전 김수길 총 심사위원장은 “부산미술대전은 전국 공모전으로서 그 권위와 위상을 굳건히 지켜오며 지역미술의 발전과 역량 있는 신진 발굴을 위해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올해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1차 심

사는 사진 및 디지털데이터 심사로 진행하여 출품 규모와 작품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심사위원 개인 채점방식으로 공정하게 입선작을 선정하였다.

2차 심사는 특선과 우수상 선정을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엄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작품의 완성도 표현력·창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앞으로도 부산미술대전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며 한국 미술계의 중요한 공모전으

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심사는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개별 심사점수로 입선작을 선정하고, 입선작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했다. 대상은 부문별 심사위원장 최다 득표로 선정되며, 전 과정은 실시간 녹화하고 기록하여 공개 심사 원칙을 강화했다.

부산미술대전은 높은 참여도와 다양한 출품작을 바탕으로 예술의 깊이와 저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올

해는 전시 공간 확충 및 운영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전시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캘리그래피 부문 신설 등 새로운 변화와 시도 역시 예술인의 폭넓은 창작 활동을 이끄는 계기가 됐다.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민화·불화부문 입상작은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양화(구상·비구상) 부문은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서예부문은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문인화부문은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됐다.

한국화, 수채화 부문 입상작은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부산시청 2층 전시실에서 전시되었으며,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전이 함께 열려 부산미술대전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했다.

부산미술협회는 엄정한 심사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공모전 운영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산미술대전이 순수한 미술인들의 창작 역량을 조명하는 공모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제25회 오늘의 작가상 김용철·청년작가상 이원숙

2025 사)부산미술협회 제5차 이사회 개최



본상수상자
공예가 김용철

청년작가상
판화가 이원숙

2025년 제25회 오늘의 작가상 본상에 공예가 김용철, 청년작가상에 판화가 김원숙이 선정되었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시상금 500만원, 청년작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400만원을 부여한다.

사)부산미술협회 ‘오늘의 작가상’은 부산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우수 작가를 발굴·지원하여 포상하는 상으로, 부산미술협회 회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미술 분야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참미술인에게 수여된다.

지난 11월 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및 신청을 받은 결과, 제25회 오늘의 작가상에는 본상 11명, 청년작가상 7명이 접수했다.

2025년 12월 10일 부산미술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5회 오늘의 작가상’ 심사위원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회 외부에서 온 김은영 위원 1명을 포함한 류동필, 이진희, 이주영, 정의림, 최추자 6명을 위촉하고, 심사위원장으로서는 송대호 위원이 위촉됐다.

심사는 각 심사위원이 수상 후보자들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작가의 최근 3년간 작품 발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의 최종 판정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사)부산미술협회 2025년도 제5차 이사회가 2025년 11월 28일 오후 6시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4층에서 열렸다. 안건은 재직 이사회 임원 65명 가운데 37명이 참석하여 심의·의결되었다. 보고 사항으로는 △2026 「제25회 오늘의 작가상」 진행보고 △2025 정기감사 일정 보고 △2026년도 창작공간 입주작가 공모 진행 보고가 있었다.

이사회 안건으로는 ▲안건1 서면건물 지분 조정 건 ▲안건2 2025년 정기총회 개최 건 ▲안건3 본 회회 공로상 추천 건 ▲안건4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운영규정 건 ▲안건5 2025 사업비(부문) 결과보고 건 ▲안건6 신임회원 인준 및 전입, 탈퇴, 제명 심의건 ▲안건7 본 협회 80주년(3·1절 기념전 회고) 및 부산미협 80년 백세발전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기타토의 사항으로는 2026년 부산갤러리, 금련산갤러리, 부평아트스페이스 대관 진행 보고, 2026년 인사아트 부산갤러리 기획전, 스타필드 작은 미술관(명지점) 임원초대전 요청 협의 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2025년 정기총회 모습.

부산미술협회 2026년도 정기총회 공고

[제1부] 제25회 오늘의 작가상 시상, 공로상 시상,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인정서 수여식

[제2부] 정기총회 본회

■ 일시 : 2026년 1월 22일(목) 오후 3시 ■ 장소 :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사)부산미술협회 2026년도 정기총회가 오는 1월 22일 목요일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정기총회는 1부 ‘오늘의 작가상 시상식, 공로상 시상식,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인정서 수여식’, 2부 ‘정기총회 본회’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정기총회는 2025 연간 사업결과에 대한 경과보고 및 경상비 예산 결산보고,

2026년도 부산미술협회 사업계획안, 경상비 예산 계획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에 앞서, 2025년 12월 29일~31일 정기 감사가 진행되었다. 2025년도 행정감사와 회계 감사 소견은 총회에서 보고 및 진행될 예정이다.

사)부산미술협회는 2025년 진행된 사업들의 경과를 돌아보며, 지역 미술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산미술협회 창립 80주년 2026년 병오년 신년인사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총장 최재원입니다.

2026년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도약의 힘찬 기운이 지역 문화 예술계와 부산 시민 여러분께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부산미술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침 우리 부산대학교도 2026년이 개교 80주년이어서 동질감과 함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의미가 두 배가 되는 듯하여 더욱 기쁩니다.

부산미술협회는 1946년 '부산미술가동맹'의 (3·1절 경축 기념미술전)을 계기로 발족한 이래, 광복 1주년을 기념한 (8·15 경축 미술전)을 거치며 현재 12개 분과 2,200여 명의 작가

협회가 걸어온 길이 곧 부산미술의 정체성이자 문화예술 생태계의 든든한 기반

가 활동하는 부산지역대표 미술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 행사인 부산미술대전, 부산미술제, BFAA국제아트페어, 오늘의 작가상, 송혜수미술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미술과 문화의 전문성과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창작과 전시, 인재 양성에서 이뤄낸 성과는 지역 예술계의 소중한 자산이며, 부산미술협회가 걸어온 길이 곧 부산미술의 정체성이자 문화예술 생태계의 든든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미술 창달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부산미술협회 최장락 이사장님과 역대 이사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우리 부산대학교

도 1946년 5월 15일, 해방 직후의 폐허와 혼란 속에서 나라의 미래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지역민들의 열정과 강한 사명감으로 시작되어, 지난 80년 동안 지역사회와 국가의 기대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부산 발전과 성장의 역사 속에서 각자 교육과 예술의 길을 걸어온 부산대와 부산미술협회가 같은 해에 80주년을 기념하게 되어 남다른 친밀감이 느껴지고 서로 더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대학 동문들도 작가와 교사, 연구자로서 부산미술협회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셔서 큰 자부심입니다.

부산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거점 국립대학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속에서도 미술학과를 굳건히 유지하며 예술교육의 공공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1974년 사범대학 미술교육학

과를 시작으로, 1982년 예술대학 미술학과가 설립되며 전문적인 전공과목 체계를 갖추었고, 1993년 미술관 준공을 통해 교육·연구·창작·전시가 연결되는 국립대학 예술대학의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의 역할은 결코 축소될 수 없다는 교육 철학으로 부산대는 앞으로도 지역 미술 발전의 토대를 든든히 지켜갈 것입니다.

부산미술협회가 걸어온 80년의 여정은 부산 예술문화사에서 매우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부산대학교도 앞으로 지역 예술기관, 협회, 창작자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부산미술의 발전과 문화적 지평 확대에 함께 할 것입니다. 대학이 가진 교육·연구·봉사의 역량이 지역 미술 생태계의 성장과 창작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손영신
부산일보 대표이사

부산미술협회 창립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일보와 부산대학교 역시 80주년을 맞아, 문화·언론·교육이 지역과 함께 쌓아 온 시간의 깊이를 새삼 되돌아보게 합니다. 1946년 3월, 해방 이후에 최초로 결성된 '부산미술가동맹'을 모태로 한 부산미술협회는 한국 근현대 미술의 태동기에 지역 예술가들이 연대해 세운 첫 미술 단체였습니다. 그 출발의 순간에서부터 협회는 부산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심축이 되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80년은 부산 미술이 고유한 미

학과 정체성을 구축해 온 과정을 증명하는 중요한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이라는 시간은 과거를 되새기는 데서만 의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대 미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는 시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작가가 자연스럽게 주목받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으며, 국가나 제도가 예술의 기반을 마련해 주리라는 기대 역시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디지털, 설치, 다매체 작업이 주도하는 오늘의 미술 환경 속에서 부산미술협 또한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능동적으로 이끌고, 사회적 가

치 실현을 함께 고민하는 주체로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대구나 광주처럼 협회 전용 갤러리나 미술관을 갖춘 지역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미술협이 아직 전용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현실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 작가들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소통하는 창작 플랫폼의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부산미술협회는 지난 80년 동안 지역 미술인의 권익과 창작 환경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성취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고 미술인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기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대적 혁신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창작 활동 지원이라는 비전, 그리고 '아트 이노베이션-미술은 산업이다'라는 핵심 가치는 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난 80년의 성취는 부산미술이 걸어온 길의 깊이를 증명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이 성취 위에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험난할지라도 미래를 향한 길을 스스로 열어가야 할 때, 부산 미술은 더욱 넓은 세계와 만날 것입니다.

창립 8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도시의 품격을 지키고 미래의 예술을 열어가길 부산미술협의 힘찬 도약을 기대합니다.

부산미술 80년... 새 길 향해 다시 도약을

부산미술 80년, 부산미술의 정체성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최장락
(사)부산미술협회 이사장

존경하는 부산미술협회 원로작가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의 창작열의에 항상 감동으로 맞이합니다.

올해는 부산미술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46년 3·1절 부산미술가동맹에서 출발한 협회는 대한민국 근현대 미술사의 가장 초창기부터 지역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 올린 첫 연대의 기록이자, 부산 미술의 정체성을 지탱해 온 중심적인 기관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전쟁과 산업화의 파고 속에도 협회는 창작의 현장을 지키며 지역예술의 흐름을 단단히 이어 왔습니다. 지난 80년을 함께 만들어주신 선후배 미술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산미술협회는 그동안 2천 2백여 회원들의 창작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한 주요 사업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역미술의 외연과 전문성을 확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의 부산미술이 '도시의 문화적 얼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이며, 협회가 걸어온 길은 곧 부산미술문화의 역사이자 지역예술이 지닌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의 미술 환경은 디지털 기반 콘텐츠의 부상, 새로운 매체와 플랫폼의 확산, 창작 주체의 다변화 등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작가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이며, 지역의 창작

생태계 역시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대형 전시공간의 부족, 예술인 복지제도,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분명합니다.

창립 80주년을 맞아 부산미술협회는 백서 발간 및 기념전을 준비하며 미래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구축, 세대 간 소통을 잇는 창작 네트워크 형성,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성 강화, 그리고 미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플랫폼 조성은 향후 협회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술은 산업이자 도시의 미래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창작 활동이 지역 경제와 문화산업 전반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부산미술협회는 지난 80년 동안 지역미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 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해왔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그 기반 위에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부산미술이 더 넓은 세계와 만나는 시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며, 지역미술이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할 또한 분명히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100주년을 향해 부산미술이 더욱 굳건히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의 힘찬 기운이 부산 미술인 여러분께 고루 스며들고, 창작의 열정과 영감이 더욱 깊고 풍요롭게 피어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이 작업을 34주목한다

대담/글 : 진수아 (학술평론분과위원)

판화 차동수



나뭇잎들이 저마다 예쁜 빛을 뽐내고 있다. 나무는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여러 가지 색을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 매미 울음이 끊기면 그때부터 나무는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 멈춤의 힘으로 '나이테'를 만든다. '나이테'는 나무가 살아온 시간의 기록 즉 나무의 '역사책' 같은 것이다. 연필을 잡는다. 흑연이 종이 위를 스치며 부드러운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 낸다. 선(線)하나에 온 마음을 담는 순간,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작가만의 '일기장'인 '나이테'를 만들고 있다.

차동수 작가는 바다와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무한한 추억을 살려주는 부산이 고향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호기심 많고 독서를 즐겼다고 한다. 초등학교 선생님 덕에 자연스레 신문도 만들고 만화도 그리면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접할 수 있었다. 홍익대학교에서 건축미술을 공부했으며, 이용길 선생님(판화가)을 만나 '판화의 배움'을 지속하며 사고(思考)의 지평을 넓혀 나갔다.

한 선(線)의 시작은 하루의 스케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생각의 축적에서 비롯된다. 차동수 작가는 1971년부터 지금까지 '판화(版畫)' 작업만 해온 '판화의 1세대'로, 현재까지 부산미술계에 원로다. 그는 산과 나무, 하늘, 구름, 강, 꽃 등 자연의 요소들을 듬직하게 표현하며,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정취를 전달한다. 단순히 자연을 모사(模寫)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성과 철학을 담아 아름다움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색의 농담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깊이 있는 표현이 돋보인다. 소나무 의태(擬態),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부드러운 구름의 흐름이 생동감을 더한다. 특유의 간략함에도 완숙된 자연의 세련됨이 깃들여 있다. 그의 작품은 따뜻함과 평화로움, 그리고 진실함이다.

작가는 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작품에 투영하려 애썼다. 작은 꽃송이를 클로즈업해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그렇지만 더욱 화려한 색감으로 풀어냈다. 가까이할수록 마음의 문을 열고 인간을 받아들이는 자연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보고 느낀 자연을 도상(圖像)으로 단순화하며, 부드럽고 온유한 표정 뒤에는 생의 의지가 숨 쉬고 있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바람의 걸 하나까지도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묻는 사유의 결과물이다. 작가는 '블록판화'의 재료를 독특하게 두꺼운 종이판을 이용해 제작한다. 일반 판화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유화 물감으로 찍어내며, 종이만큼은 부드럽고 탄력성 있는 한지(韓紙)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세계는 '낙동강보존회'라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몸을 담으면서 줄곧 이어온 표현 방식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릴 적 지우개에 이름을 새겨 도장처럼 찍어보거나, 학창시절 미술 시간에 흑백 고무판화를 새겨본 추억이 있을 것이다. '판화(版畫)' 작업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긴 여정이다.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해 '판을 하나하나 새기는 과정에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내심'과 '집중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작품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매번 다른 느낌이 나오는 점이다. 완성된 작품을 보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예술 장르다. '판화'는 복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오래전부터 예술적인 가치와 한정판의 복제예술(複製藝術)로 인정받았다. 가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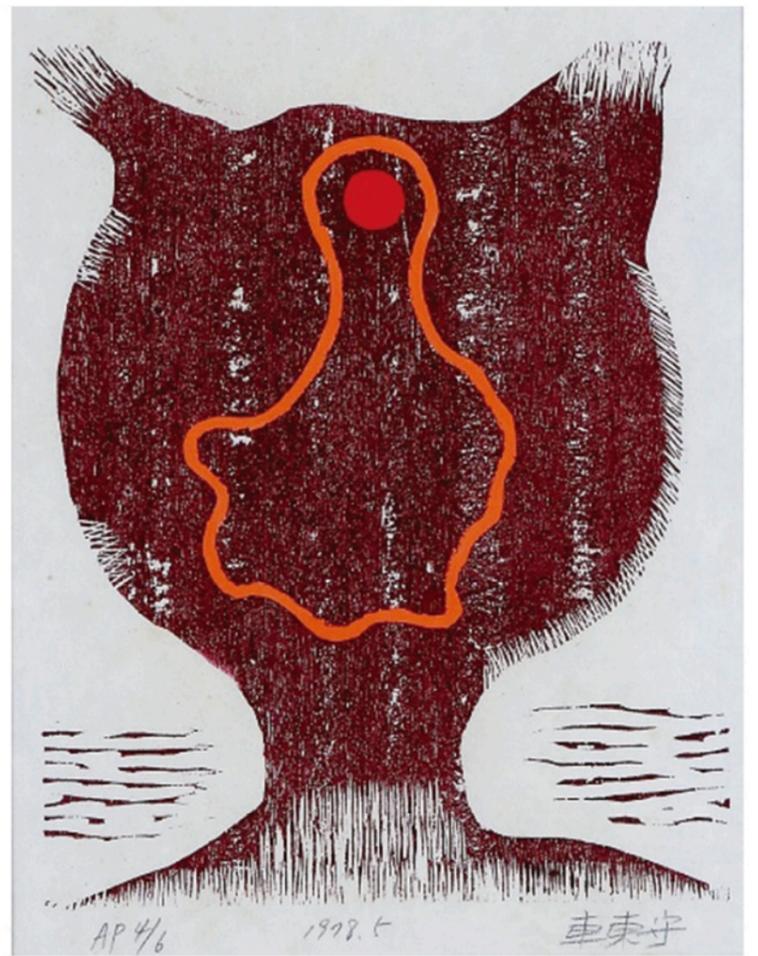
한 요소는 작가가 참여했다는 증거로, 작가의 친필 사인(sign)과 에디션(edition) 넘버(number)를 찾아볼 수 있다.

차동수 작가의 판화는 빠르게 소비되는 이미지와 정보의 시대에, 느낌과 반복의 가치를 다시 묻는다. 그의 작업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완성보다 축적이 먼저 놓인다. 판을 새기고 찍어내는 행위는 자연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닮아 있으며, 한번의 흔적은 다음 흔적을 위한 준비가 된다. 이는 기술보다 삶의 방식에 가깝다. 작가에게 판화란 표현의 수단을 넘어, 자연과 인간, 시간과 기억을 이어 붙이는 사유의 구조다. 그렇게 그의 화면에는 소리 없는 시간의 걸이 스며들고, 그 조용한 호흡 속에서 자신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게 된다.

차동수 작가는 소중한 것 위에 소중한 것, 그렇게 쌓여 지켜낸 세상은 어느 곳이든 '판화'였다. 작업실에서 정답 없는 선을 그어놓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색'을 올리는 순간, 그는 잠시 체계의 공허에서 벗어난다. 화가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프)는 "색은 하루종일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지만, 작가 역시 색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동시에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알 수 있다.

많은 예술영역 중 미술 분야는 소유문화(所有文化)에 속한다. 전시장에서 작품을 감상하기도 하고 작품을 구매하여 소유하고 수집한다.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음악, 공연장에서 많은 관객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연극과 무용, 영화관이나 TV에서도 볼 수 있는 영화 등은 대중들에게 쉽게 갈 수 있는 예술 분야이다. 반면 미술작품은 전시장에 직접 가야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또한 전시가 끝나면 그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잃게 된다.

'예술은 자연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고리로 시작했다. 작가는 '판화' 속에 걸어온 세월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깨달았



비리78_40.6x32.9cm, 종이에 목판, 1978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다. 갈의 움직임 하나, 물감 한 줄기, 간절함까지도 모두 자연의 숨결 속에 있음을 알았다. '예술이란 결국 신(神)이 사람의 몸을 빌려 표현하는 자연의 또 다른 '언어'일지도 모른다. 내 인생의 전부를 '판화(版畫)' 위에서 보냈다면, 이제는 '판화'를 통해 누군가의 가슴에도 따뜻한 빛 한 줄기가 전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는 작가의 해맑은 웃음 속에는 꽃이 웃는 듯 작품과 닮아 있다.

차동수 작가는 "오늘도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한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손끝에는 소년 같은 감성이 남아 있다. 사람을 잇는 보이지 않는 '살'이 이어지는 한, 작가의 '판화' 작업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인연(因緣)'이란 단 두 글자로 이뤄진 단어이지만, 이 보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말이 또 있을까. 판화 작업을 하며 살아온 내 삶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꽃 구름 '16-21'_30x40cm, 한지에 유채, 2016.

의 '인연'으로 성장해 왔다. 함께 밟고 달려주는 동료들, 길을 만들어 준 선생님, 그들과의 '인연'이 내 작품의 '결(結)'을 만들고, 삶의 방향과 철학을 굳게 세워주었다.

차동수 작가는 지나온 시간 속엔 아쉬움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결국 나를 단단하게 해준 날들이었다. 그동안 해온 노력(努力)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법은 없다.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原動力)이 될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잘 버티고 힘차게 걸어왔다. 그거면 충분하다.



구름 '16-11'_15x25cm, 한지에 유채, 2016.

물따라 '18-28'_25x25cm, 한지에 유채, 2018.

물따라 '18-44'_35x25cm, 한지에 유채, 2018.

- 1968년 2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건축미술과 졸업
- 개인전 18회
- 홍익대 미대 동문전, 부산판화회전 외 기획전 및 단체전 300여회
- 한국판화회 공모전 차석상, 부산미술대전 판화부 수석상 (1, 2, 4회)
- 부산국제판화제 운영위원장, 동주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교수 역임
- 작품소장: 부산시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부산대학병원, 부산은행 외 다수
- (현)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부산판화기협회 고문

송대호 화백, 화업 55주년 기념 회고전 개최

자연과 인간, 삶과 예술이
하나 된 흔적,
한 폭의 풍경이 되다



서양화가 송대호

국전 입선 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하며 40여 년간 교직 생활과 창작 활동을 병행해온 송대호 화백의 회고전이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



봄의 환희_30F, oil on canvas, 2025.

렸다.

목우회, 길동인, 신우회 등 지역미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이번 전시 '화업55년 송대호 산수전-자연에서 배어나다'를 통해 반세기에 걸친 예술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젊은 시절의 대작부터 다양한 구상 평면작품 55점을 선보이며, 작가의 작품세계를 폭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화면 곳곳에는 진해의 벚꽃 길을 거닐던 소년이 처음 붓을 잡던 순수한 설렘부터, 세월과 경험이 커져서 쌓여 탄생한 원숙한 미감까지 그의 인생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송 화백의 풍경화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시키는 서정성이 특징이다. 유연한 햇살, 청량한 공기, 자연이 품은 숨결을 사실적이면서도 따뜻한 감성으로 담아낸 그의 작업은 자연에서 얻은 감동을 화폭 위에서 다시 빛어낸 결과물이다. 농익은 색채와 차분한 구성은 자연의 표정을 따라가며 그 속에

서 변화하는 인간의 감정과 존재의 울림을 포착한다.

그는 "예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자연"이라 말하며 자신의 예술관을 전했다. 자연과 인간의 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세계가 가장 보편적이기에, 자연에서 출발한 작업을 꾸준히 고수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자연을 그대로 모사하기보다 내면을 거친 세계가 더 주목받길 바란다. 화폭 위 빛과 색의 질서를 재창조해 더욱 아름답고 신비로운 정적인 자연을 표현하고 싶다. 밝음과 어둠의 대비 속에서 그림의 생명이 드러난다"라고 덧붙이며, 자연과 일치하는 예술적 경지를 향한 소망을 밝혔다.

송 화백의 이번 회고전은 자연을 삶의 스승으로 삼아온 한 예술가의 긴 호흡을 되새기게 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그의 화업은 자연에 대한 경외,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예술에 대한 변함없는 성찰이 한 폭의 풍경으로 응축된 여정이었다.

유년의 기억과 예술 사이, 그려낸 마음의 지도

1970년대작 <여인>부터
최근작 <일기를 쓰다> 까지,
예술 여정 한자리에



서양화가 이동순

갤러리조이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동순 초대전 '기억의 메타포'를 기획하여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1974년부터 2025년까지 50여 년에 걸친 이 작가의 예술 여정을 네 개의

주요 시리즈-1970년대 <여인>, 1985년 이후 <바보>,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의 <놀이작업>, 현재까지 이어진 <일기를 쓰다>-로 구성해 하나의 연속된 서사로 엮어냈다. 이를 통해 반세기에 걸쳐 확장된 작가의 조형언어가 응축적으로 드러났다. 형식적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표현과 예술적 상상력은 초기 작품들부터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서사를 따라가도록 했다.

먼저 1970년대 <여인>시리즈는 작가의 청년 시절의 예민한 감각이 고스란히 담긴 작업들로, 담백하고 절제된 인물의 형상 속에 자유와 일탈에 대한 갈망을 투영하고 있다.

이어지는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놀이> 시리즈는 딱지 접기, 구슬치기 등 유년기의 놀이 도상을 다양한 매체로 구현하며,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현대적 감각을 더해 재해석했다. 창작 행위 그 자체가 유희로 작동하고, 놀이가 기억의 저장 장치이자 예술적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까지 이어지는 <일기를 쓰다> 시리즈



여인-I_80x60cm, 인화지-oil color, 1979.

는 외부로 향하던 시선이 내면으로 집중되는 조용한 놀이의 형태로 발전한다. 개인적 기억이 현실을 벗어나 환상으로 솟구치는 풍선 이미지와 부유하는 인물들은 놀이가 심리적 치유와 영적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은유한다.

이처럼 그의 작업은 시대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변화를 보여주지만, 그 근원에는 늘 '유년기의 놀이, 순수한 기억, 잊혀진 감정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뿌리가 자리한다. 그의 작품앞에 서면 관객은 자연스레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되고, 그 기억과 감정의 환기가 하나의 '놀이'처럼 작동한다. 이는 이 작가가 기억 속 놀이를 매개로 한 감정의 회복이자 오랫동안 추구해 온 예술의 본질적 기능이기도 하다.

해체의 회화, 자유의 변주



데리다의 꿈-비밀 정원_100x40cm, Mixed Media, 2025.

10월 28일~11월 10일, 피카소화랑



서양화가 김덕길

2001년 문화예술 창달 부산시장 표창장을 수여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은 김덕길 작가의 S문화예술기획 초대전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피카소화랑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입장에서 관찰한 자유'를 통해, 언어와 텍스트의 모호성에 초점을 맞춘 2차원의 평면 작업부터, 3차원의 영역을 넘나드는 해체의 영역까지 선보였다. 김 작가의 해체주의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제기한 철학적 사유 방식이자 비평방법론으로 전통적인 구조와 고정된 의미를 해체하고, 형식을 파괴하며 다층적이고 열린 해석을 지향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작가의 아방가르드적 시도는 기존의 미적 규범을 해체하며, 사실적 묘사와 현대적 추상 표현 요소를 대립, 결합, 해체하고 작업의 완성도와 미완성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화폭 위 상반되는 시각적 요소인 부드러운 곡선과 날카로운 선, 난색과 한색을 함께 사용하여 작품 자체가 모순적이고 다층적으로 보이게 한다.

김 작가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그리기 따라 지우기, 지우기 따라 그리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새롭게 만나는 조형의 세계를 드러낸다. 또한, 그의 회화에서 색채는 해체의 장치이자 재구성 에너지로 작동한다.

대표 작품 <데리다의 꿈-비밀정원>은 우드락에 캔버스 천을 입히고, 형상을 그렸다가 지우는 등 재조립시켜 제3의 형태로 나타냈다. 기존의 평면작업을 도려내고 오브제화하여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을 구현했다.

물결을 닮은 색, 바다를 물들이다

40여 년의 예술 여정
바다의 깊은 결,
색채의 숨결을 품다



공예가 천경자

한국과 일본에서 순수 공예염색과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한 천경자 작가의 13번째 개인전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천경자 갤러리에서 열렸다. 40여 년간 염색공예에 한 길만 걸어온 천 작가는 전통·현대 기법을 폭넓게 연구해 왔으며, 한국 예술문화 섬유공예에 명인으로 인정받아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바다와 여행'의 세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재정리하는 자리였다. 바다 표면의 풍경을 넘어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감정, 리듬, 울림까지 포착하려는 시도가 작품 전반에 펼쳐졌다. 이번 전시는 과거 100호 전후 작품에서 벗어나 200호 규모의 대표작을 비롯해 20여 점 내외의 중·대형 작품들이 포함돼 바다의 움직임과 내면적 공간을 압도적인 규모로 경험할 수 있었다.

천 작가는 창작 실크에 직접 색을 물들이는 섬세한 염색 방식을 사용한다. 납염과 크랙염, 스텐실, 분무염, 마블링 등 다양한 기법을 한 화면 안에서 조합하고, 파라핀을 이용한 방염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해 깊은 색



바다여행I_210x123cm, 견, 왁스, 산성염료, 텍스타일, 납염, 호염, 분무염, 균염염, 퀴팅, 마블링, 2025.

의 층위와 유기적 흐름을 만들어 낸다. 대표작 <바다여행I>은 작가의 미학적 방향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작품으로, 파라핀 기법이 만들어낸 단일 흐름의 결과 크랙염의 긴장감, 스텐실의 선들이 하나의 생명을 가진 구조처럼 얽여 바다의 내부 리듬을 형상화한다. 작가가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으로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천 작가는 창작의 영감이 "자연의 호흡과 미세한 빛의 변화에서 온다"고 말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결, 새벽빛의 농담, 물결의 떨림 등 자연이 건네는 감각을 염색의 언어로 치환했다. 그 과정에서 우연성과 계획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점을 염색 공예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전시는 전통 염색기법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회화적 구성과 현대적 감각을 적극적으로 결합해 온 작가의 축적된 시간의 결과이자, 새로운 창작의 전환점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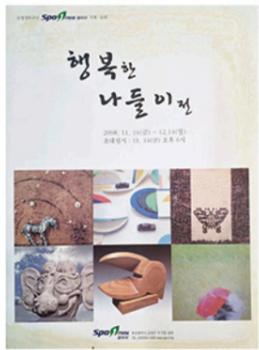
부산미술 단체를 찾아서 35

「부산독립미술가협회」 Sinc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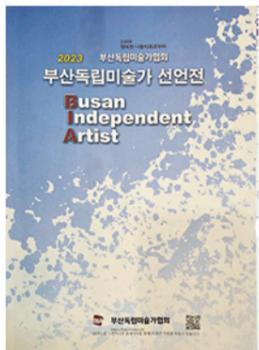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동시대 미술의 실천과 비전을 모색하다



2023년 부산시청전시실에서 개최된 정기전 '부산독립미술가선언전' 단체사진.



창립전 도록표지.



2023년 부산시청전시실에서 열린 제15회 정기전 도록표지.

시작하며 방향성이 분명해졌다. 학교에서 출발한 모임이 이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작가들과 청년작가들이 함께 하는 폭넓은 세대대를 아우르는 협회로 발전함에 따라, 회원들 간에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나가고 있다.

현재 부산독립미술가협회는 회장 김종택, 부회장 박태임, 사무국장 이지훈, 총무 정상지, 대외협력 김도연을 필두로 하여 박순곤, 권지현, 김다희, 김삼성, 김성기, 김영아, 김옥선, 김운찬, 김종원, 노재환, 류인혜, 박경혜, 박명수, 박준희, 박향숙, 손을수, 손재현, 신상용, 신성호, 신홍직, 유남희, 예유근, 이민환, 이진이, 장준호, 하섭, 정광화, 최상철, 최창임, 한성희, 허필석, 허혜원, 홍익중, 유경화, 김지은 작가 등 총 4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부산독립미술가협회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살아남은 대량 소비적 미술시장과 비지역적 미술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예술적 가치를 상실해가는 동시대 미술의 경향 속에서 부산미술가들의 다양성과 독립적인 창작과 비평의식을 강조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단체의 한 주축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은 지역 미술가들이 지향해야 할 예술적 방향과 시대정신을 고민하고, 작품전과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며 토론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미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귀감이 되는 미술 단체가 되고자 노력해왔다.

부산독립미술가협회가 말하는 '독립은 미

술 자체의 독립이 아닌, 작가의 독립을 뜻한다. 미술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각 작가가 스스로 성장하고 일어서고자 하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동시대 미술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보여주는 것을 그 의미로 삼는다.

지난 2023년 부산시청전시실에서 열린 제15회 정기전에서는 제1회 부산청년작가 발굴전, 부산독립미술가선언 축하잔전, 부산미술발전 컨퍼런스 등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행사를 열었다. 제1회 부산청년작가발굴전은 부산독립미술가협회 회원들이 국내외 발굴한 중국 7명, 일본 1명, 한국 7명 등의 청년작가들이 함께했다. 또한, 지역과 해외작가들의 축하찬조전사가 이뤄졌으며, 컨퍼런스에서는 비평가 이상수와 부산미술포럼 예유근 대표의 발제로 토론이 열렸다.

이처럼 부산독립미술가협회의 방향성은 우리의 예술이 어떻게 시대를 반영하는가에 있다. 미술이 사회와 소통하고 시대의 문제를 함께 성찰하고 고민하며, 이를 조형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예술가의 사명이자 그것이 곧 동시대 미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본다.

최근 선보인 기획전 '2025 아트투어 부산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 지역과 쇠퇴한 지역 사회를 예술로 재조명하며,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부산독립미술가협회 김종택 회장은 "부산은 바다를 중심으로 개발된 도시 특성상 문화 기획과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술은 모든 시민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자본 중심의 구조를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균등하게 문화가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획전은 문화재단의 지원을 통해 협회의 기획력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어려움과 적절한 전시 공간 확보가 늘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부산의 예술가들이 지역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나아가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 부산은 전쟁 피난 시절 수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창작했던 역사와 정신이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유산이 부산을 예술의 도시로 성장시키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술이 사회와 소통하며 지역 문화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뜻을 전했다.

컬렉터 집중분석

- 서른 한번 째 이야기

"예술은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움직임이다."

- 마르셀 뒤샹 -



좌로부터 바람보기- 알 지(知) 부드러울 유(柔). 제작조명, 저속모터, 깃털, 바람/나비 그림자2, 혼합재료, 저속모터, 제작조명, 타이머, 그림자/해파리, 폴리카보네이트, 트리스탈, 쉬폰 천, 제작조명, 바람/순간의 나비Ⅵ, 혼합재료, LED.

시대정신 읽기 - being이 아닌 becoming의 세계관으로 5

"흔들리는 조각, 살아 있는 조각" - 최규식이라는 하나의 감각 세계-

바닷바람이 부는 도시 부산에서, 예술은 언제나 고정된 형태를 거부하며 자신을 다시 만들어 왔다. 빛은 시간마다 색을 달리 하고, 파도는 한 번도 같은 무늬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 도시의 감각은 '정지'보다 '흐름'에 가깝다. 필자는 'being'이 아닌 becoming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작가를 부산에서도 찾아 컬렉터들에게 소개하는데, 최근에 발견한 작가들 중에는, 그 '흐름'의 감각을 치밀한 예술적 언어로 번역해 온 작가, 최규식이 있다. 그는 조각을 전공한 작가다. 그러나 그의 조각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누구나 이렇게 묻게 된다. "이것도 조각인가?"라는 질문이 절로 나온다. 그러나 바로 그 질문이 그의 예술의 중심을 가장 정확히 겨냥한다.

전통적 조각은 돌, 나무, 청동 같은 단단한 물질을 사용해 '형태를 세우는 예술'이었다. 무게와 볼륨이 작품의 존재를 증명했고, 조각은 공간 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예술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규식의 작업 앞에서는 이런 전통적 관념이 순식간에 흐려진다. 그의 조각은 단단하지 않다. 대신 빛, 바람, 그림자, 쉬폰, 깃털, 투명한 레진 같은 '형태를 붙잡기 어려운 재료들이 작품의 핵심을 이룬다. 예를 들어 <바람보기> 알 지(知) 부드러울 유(柔)라는 작품을 보면, '몸체'라 부를 만한 단단한 구조는 거의 없다. 작품은 깃털이 바람에 흔들리고, 빛이 그것을 비추며, 그 흔들림이 주변 벽면에 그림자로 번지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조각이라는 감각적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즉, 그의 조각은 물질이 아니라 현상으로 존재한다. 조각이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빛과 공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떨림이라는 것이 그의 미학이다. 이 점이 그를 기존 조각가들과 단호히 구별 짓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조각하는 작가 - 앵프프랑스의 조형 -

그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형태보다, 보이지 않는 감각의 충위를 다룬다. 뒤샹은 '앵프프랑스(infrance)'라는 개념으로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가장 얇은 차이를 설정했는데, 최규식의 조각은 바로 그 간극에서 작동한다. <나비 그림자>와 <꽃 그림자>를 보면, 나비는 이미 사라졌다. 대신 빛이 만들어낸 잔상, 저속모터가 일으킨 진

동, 그림자가 벽에서 흔들리는 사건만이 남아 있다. 여기서 조각은 물체가 아니라 감정의 그 기척과 시간의 떨림 속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드러낸다.

누군가는 이것을 "조각의 해체"라 부를지 모른다. 그러나 실은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그는 조각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조각이 될 수 있는 감각의 범위를 넓게 열어젖힌다. 그의 작업은 매스(mass)를 버리고 감각의 밀도(density)를 선택한, 이른바 '비(非)매스 조각'이다. 전통적 조각의 핵심은 '질량(mass)'이었다. 조각이 무겁고 단단해야 존재가 증명되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공기의 밀도, 볼륨이 아니라 감정의 진동, 실체가 아니라 '분위기(운치, Atmosphere)'다.

<해파리>처럼 쉬폰,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가벼운 재료들이 공기 속에서 느리게 흔들릴 때, 그의 조각은 더 이상 물체가 아니라 "부유하는 존재론"이 된다. 돌이나 청동처럼 고정되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처럼 살아서 움직이며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예술이 된다. 그의 조각은 서 있지 않는다. 대신 흔들린다. 흔들림 속에서 존재하고, 흔들림 속에서 스러지며, 다시 그 자리에서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정지된 being의 시대가 아닌, 끊임없이 되어가는 becoming의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의 새로운 숨결이다.

오늘날의 예술에서, 더 중요해진 질문은 '무엇을 표현했는가'가 아니다. '예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이다. 최규식의 작업은 이 질문에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는 듯하다. 그는 형태의 고정성 · 무게 중심 · 매스 · 물질 중심의 조형 언어...이 모든 것을 조용히 비껴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 흐름 · 떨림 · 생생한 공기 · 시간의 미세한 장면 · 감정의 온도마저 조각의 재료로 끌어안는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나 파격이 아니다.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존재 방식에 대한 예술적 응답이다. 최규식의 조각은 고정되지 않고, 언제나 그 답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며 미끄러진다. 예술은 존재의 한 방식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되어가는 운동, 'becoming'임을 보여주는 작가다. 그래서 나는 'becoming'의 사유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부산 작가로 최규식을 주목한다. 그의 작업은 변화와 생성의 시대에 요구되는 감각을 은근하면서도 깊게 환기한다.

김성현 학술평론분과 회장

부산 복합문화공간 새모 : 영도의 역사와 기억, 그리고 현재를 탐구하다

<논카메라 리서치 영도의색 COLOR OF YEONG DO>



2025년 하반기 영도구 해양로에 문을 연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조선소의 거대한 선박과 크레인, 길 거리에 쌓여있는 녹슨 채인과 부품들, 봉래산을 등지고 높이 솟은 대단지 아파트, 옥상에 널려있는 작업복들이 겹쳐있는 풍경을 통해 말해준다.

영도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색을 실마리 삼아, 지역의 역사와 기억, 그리고 현재의 삶을 시각적으로 탐색한 이번 전시는 영도의 풍경 속에서 발견되는 색들과 그곳을 거쳐 간 사람들의 삶과 노동,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영도라는 도시를 재현적 방식으로 탐색하지 않고, 도시의 고유한 색들을 읽어내는 과정으로 접근한다. "Non-Camera"는 표면적 해석과 시각적 재현을 지양하고, 그 공간이 변화하는 과정 자체를 물질로서 기록하는 방식이다. 영도 지역의 역사와 현재의 삶을 이루는 고유한 색들을 찾아내고, 이 색들의 고유한 이름과 서사를 시각적으로 풀어내어 전시했다.

전시장의 1부 <영도의 현재 : 관망, 섬, 사람>에서는 변화하는 영도의 오늘을 조망했다. 부산·경남권에서 활동하는 권하형, 정현준, 다시끝나는 0으로(박성덕, 송기철)는 이번 전시를 위해 각자의 시선으로 신작을 제작하였다.

권하형은 영도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떠오른 현여울문화마을의 실제 삶의 풍경과 '포토존'으로 소비되는 풍경의

간극을 드러냈으며, 정현준은 봉래산과 대단지 아파트가 공존하는 영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풀어냈다. 프로젝트 팀 '다시끝나는 0으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시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를 영도에서 채집한 파란색 오브제로 구성된 설치작업을 선보였다.

2부 <영도의 시간:사람, 노동>은 영도에 축적된 시간, 노동을 되짚는다. 부산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 최민식의 1970년대 '깡깡이 아지매' 사진은 조선소 여성 노동자의 강인한 모습을 기록했다. 이성은 작가는 영도 해녀들의 사진과 그들의 글을 통해, 삶과 바다의 이야기를 함께 전했다. 박은태 작가는 묵묵히 노동하는 서민들의 삶을 회화로 풀어냈으며, 최대진 작가는 다시 돌아온 고향의 모습을 드로잉을 기반으로 하여 일련의 회화와 조각 설치 작업을 통해 선보였다.

이번 기획전은 직장인을 위한 15분 미니 도슨트 투어 및 작품을 기반으로 한 워크숍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했다. 전시장 주변에서 영도의 색을 스마트폰으로 포착하고, 그 색을 추출하여 나만의 컬러카드를 완성하는 체험프로그램 '영도 색 채집. 영도의 색과 기억을 함께 채워가는' 관람객 참여 아카이브 형태로, 권하형 작가의 작품에서 추출한 영도 컬러 카드에 자신이 느끼고 생각했던 영도의 색깔의 카드를 골라 관련한 기억을 적어 전시하는 '영도 컬러 아카이브' 최대진 작가가



현여울문화마을에서 채집한 풍경과 색들을 재구성하여 시각화한 권하형 작가의 '담인 풍경'.



봉래산과 대단지 아파트가 공존하는 영도를 화면에 담은 정현준 작가의 '봉래산'.

부산 해양박물관 근처에 새로 생긴 복합문화공간 새모는 영도구 동삼동 동삼혁신지구 내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전시공연장,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문화강좌실 등이 들어서며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과 기업·문화 활동 지원을 아우르는 영도의 새로운 문화·교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시민과 함께 다채로운 예술·문화콘텐츠가 일상 속에 스며든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전시는 2025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을 일환으로, 공간협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부산시설공단이 후원했다. <논카메라 리서치 영도의 색>은

영도구에 새롭게 자리잡은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에서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열렸다.

권하형, 다시 끝나는 0으로(박성덕, 송기철), 박은태, 이성은, 정현준, 최대진, 최민식 작가의 작품들로 이루어진 <논카메라 리서치:영도의 색>은 '영도를 조명했다. 영도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지만, 부산의 대표 인구소멸위기 지역이며 초고령화 도시이다. 동시에 영도는 조선업과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 노동의 공간이며, 한편으로 파란과 이주의 기억이 쌓인 곳이다. 산업의 쇠퇴, 관광과 개발이라는 급격한 흐름을 겪은 영도의 복잡다단한 지역성은 현여울 마을의 벽화와 무지개 계단, 그리고

영도 골목을 돌아다니며 드로잉한 작업을 관람하고, 영도의 풍경을 먹펜으로 드로잉 해보는 '영도 먹 드로잉'을 통해 영도의 풍경을 상기시키며, 관람객 및 부산 시민들의 시선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번 전시를 총괄 기획한 '공간 힘'의 김효영 큐레이터는 "영도의 현재와 과거를 잇는 다양한 색을 기록하며 산업과 관광, 사람과 기억이 교차하는 도시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풀어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민과 관람객 모두가 영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길 작가, '부산시 문화상' 수상



10월 30일 도모현 야외정원에서 열린 제68회 부산시문화상 시상식에서 김수길 원로작가가 시각예술부문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1957년부터 제정된 '부산시 문화상'은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며,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향토 문화 발전과 부산의 명예를 드높인 문화예술인에게 주어지는 지역 최고 권위의 문화상이다.

2025년 제68회 부산시 문화상 시각예술 부문 수상자로 김수길 화백이 선정돼 지난 10월 30일 도모현 야외정원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1969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과 1982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김 화백은 국내외 24회의 개인전과 450여회의 초대전 및 단체전에 참여하며, 전통 한지의 물성과 동양적 사유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 세계로 한국적 조형미를 구축해왔다. 또한,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황조근조훈장 등을 수여받았다. 부산한국화전 창립과 삼색전 활동 등을 통해 부산의 전통 회화의 계승과 저변확대에 기여해왔다.

용두산·부평 입주작가전 '점화' 개최

2026년 새해의 문을 여는 첫 전시로, '점화 IGNITE' 레지던시 입주작가 초대전이 12월 31일부터 1월 12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 부산 갤러리에서 개최된 후,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부산 금련산갤러리로 이어진다.

이번 전시에는 용두산공원 미술의 거리 입주작가 안수진, 이규열, 서아은, 이수아, 윤연정 작가와 부평아트스페이스 입주작가 유경, 양수미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전시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불씨처럼, 예술가들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창작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낸다. 서로 다른 장르와 재료를 사용하는 참여 작가들은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시선과 주제를 품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모두 살아있음에 대한 공통된 감각이 자리한다.

평면 회화에서 다양한 조형적 실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작품들은 시간 속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예술의 맥박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각자의 작업이 지닌 개별적 결이 모여 하나의 리듬을 이루며, 관객에게 새로운 해를 여는 창작의 숨결을 전한다.

'점화 IGNITE'라는 전시명처럼, 7명의 작가가 품은 예술적 불씨가 서로에게 점화되고, 또 관객의 감각 속에서 다시 타오르는 순간을 마주하게 한다. 새해의 길목에서, 예술의 생명력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점화IGNITE 레지던시 입주작가 초대전' 포스터.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하다 최우수작가展

「제13회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하다 OPEN MATCH展」 최우수 작가로 선정된 옥진화(만화), 박기원(공예), 장우재(한국화) 작가 초대전이 1월 14일부터 1월 26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부산지역 청년 작가들의 창작 역량과 예술적 성취를 보다 넓은 무대에서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네트워크와 소통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부산미술협회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최우수 및 우수작가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같은해 7월 21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우수작가 4인의 릴레이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번 초대전에 참여하는 세 작가는 각기 다른 조형언어를 통해 현대사회의 구조와 인간 인식의 본질을 조형적으로 탐구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세계의 이면과 그 안에 숨겨진 가치의 균열을 시각적으로 드러낼 예정이다.

부산미술협회는 매년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하다 OPEN MATCH展'을 통해 부산 미술계의 젊은 인재들을 발굴·육성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청년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제13회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하다 최우수 청년 작가展 포스터.

■ 미술칼럼

부산미술 80주년,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여전히 남았는가

2026년은 부산미술이 기록 위에 등장한 지 80년이 되는 해다. 부산미술협회가 정리한 『부산미술 64년(1946~2009)』의 연보에 따르면, 해방 직후인 1946년을 전후해 부산에서는 조직적 미술 활동이 본격적으로 확인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삼을 때, 2026년은 부산미술이 축적해 온 시간의 길이를 기념하는 해이자,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묻는 분기점이 된다. 부산미술 80년은 축하의 연대가 아니라, 질문의 연대다.

부산미술 아카이빙 연구를 진행하며 1980~90년대 비평문과 전시 기록을 다시 들춰보았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낯설음이 아니라 기시감이었다. 당시 비평가들이 지적했던 문제-제도적 소외, 지역 내부의 분열, 공공 지원의 취약함, 서울 중심 유통 구조에 대한 구조적 피로는 놀랍도록 현재와 닮아 있다. 시간은 분명 흘렀지만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 반복성 자체가 부산미술의 역설적 정체성이다.

부산미술은 언제나 부산스럽다. 투박하고, 때로는 날이 서 있으며,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기에 감각은 더 예민해졌다. 1940~50년대 제도적 중심 밖에서 지역 예술가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발언했

던 장면은 부산미술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이 흐름은 1980~90년대에 명확히 이어진다. 1980년대 부산청년비엔날레, 형상미술의 확산, 대안적 전시와 자생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제도 밖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였다. 이는 단절이 아니라 반복이다. 부산미술은 언제나 제도에 먼저 편입되기보다, 제도를 의심하며 출발해 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흐름은 국제적 접점으로 확장된다. 바다미술제, 조각심포지엄, 그리고 이후 부산비엔날레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부산미술이 '로컬'에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서울 중심의 미술 질서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 시기 부산미술은 지역성과 동시대성, 공공성과 실험성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복합 구조를 스스로 감당해 왔다. 부산미술은 언제나 하나의 정의로 고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균열과 충돌, 실패와 재시도를 반복하는 열린 구조로 존재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최근의 '퐁피두 부산분관' 논란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부산미술 80년의 흐름 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충돌이다. 문제는 단순히 해외 유수 미술관의 분관 유치 여부가 아니다. 절차 투명성의 결여, 지역 미술 생태계와의

사전 합의 부재, 공공 재원의 사용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미술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 사태의 핵심이다.

부산 작가들과 지역 문화계가 제기한 비판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이는 부산미술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자기 질문의 연장선이다. 1940~50년대 예술가들이 제도 밖에서 공동체를 만들며 발언권을 확보하려 했던 장면, 1980~90년대 지역 주도의 전시 운동과 대안적 실천,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로컬과 글로벌의 긴장 속에서 축적된 경험들이 현재의 비판으로 응집된 것이다. 다시 말해, 퐁피두 사태는 부산미술이 외부 권위에 대해 처음으로 저항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부산미술의 태도가 다시 한번 표면화된 사건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논쟁이 '국제화 반대'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부산미술은 이미 국제적 교류와 실험을 충분히 경험해 왔다. 문제는 국제라는 이름 아래 지역의 역사와 맥락, 축적된 담론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가에 있다. 브랜드는 수입할 수 있지만, 미술사는 수입할 수 없다. 부산미술의 80년은 외부의 권위를 빌려 단숨에 갱신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결국 부산미술 80년은 과거를 기념하기 위한 의례가 아니다. 오히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을 다시 호출하는 시간이다. 지역미술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가. 공공성과 자율성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국제적 연결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8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부산미술은 아직 완성된 정의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태도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 태도, 중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부산이라는 장소에서만 생성될 수 있는 감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태도다. 부산미술의 생명력은 바로 그 불편한 긴장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

2026년, 부산미술 80년을 말하는 이유는 숫자를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다.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실험과 저항의 미학을 다시 확인하기 위함이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질문이 생성되는 순간—바로 그 지점에서 부산미술은 오늘도 여전히 부산스럽게, 그리고 살아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김종원 (학술평론분과위원)

<기고> 일본 나오시마 '리턴' 여행이 남긴 것

이번 글은 부산미술 회원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라며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가을 시즌에 맞춰 찾은 나오시마, 데시마, 이누지마의 미술공간과 풍경을 기록한 문화탐방기이다.



일본 '나오시마 신미술관' 개관 기념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는 한국 작가 서도호의 작품 (Hub/s, Naoshima, Seoul, New York, Horsham, London, Berlin, 2025). 후쿠다케재단 제공.

부산미술협회(BFAA)가 주최하는 BFAA국제아트페어 조직위원과 자문위원 등 10여 명이 일본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기간에 맞춰 나오시마를 다녀왔다. 참가자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첫 나오시마 방문이어서 만족도는 높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3년마다 열리는 트리엔날레 기간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다.

나오시마의 연간 관광객 추이를 보더라도 예술제가 열리는 해(2019년 기준 약 110만~120만 명)와 그렇지 않은 해(약 40만~50만 명)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예술제 기간에는 숙소와 선박(고속선 혹은 페리) 예약은 물론이고, 주요 미술관 입장권 확보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술제 기간 방문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뭤까.

예술제 기간은 특별 설치 미술이나 퍼포먼스가 추가되고, 아티스트 토크나 워크숍, 지역 주민 참여 공연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 집중 배치돼 역동적이고 활기찬 분위기가 더해진다. 또한 예술제 기간에는 페리 운항 횟수가 늘어나고, 평소에는 배편이 드물던 작은 섬들까지 연결되는 임시 노선이 생겨 이동이 한결 수월해진다. 참고로 나오시마는 세토내해의 수많은 섬을 잇는 거점(Hub)이기도 하다.

하지만 돌아켜 생각하면 3박 4일이라는 일정상 새롭게 준비된 예술제 프로그램을 즐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비용 절감과 시설 부족 등으로 나오시마가 아닌, 다카마쓰에 숙소를 잡고, 페리로 섬과 섬을 오가는 이들이 대부분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인터넷 예매가 안 되는 당일 페리 표 구입을 위해 누군가는 날마다 터미널로 나가 꼭두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고, 표가 있어도 선착순으로 승선하는 규정에 따라서 1~2시간씩 줄을 서서 대기하기 일췌였다. 심지어 우리 일행을 끝으로 승선이 끊겨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감히 조언하건대, 예술제 기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나오시마



일본 '나오시마 신미술관' 외부 전경(위)과 하늘에서 내려다본(아래) 모습. /후쿠다케재단 제공.

첫 방문은 평년 방문도 나쁘지 않다. 두세 번의 방문이라면 다양한 예술제 프로그램으로 눈을 돌리겠지만, 사실 나오시마를 대표하는 야외 조형물이자 랜드마크인 쿠사마 야요이의 (노란) 호박과 빨간 호박을 비롯해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지추미술관(地中美術館),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 이우환 미술관, 안도 뮤지엄 그리고 나오시마 신미술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명소는 평년에도 활짝 열려 있다. 이외에도 데시마 섬의 '레이의 매트릭스' 작품, 이누지마 섬의 '제이렌쇼 미술관'과 야나기 유키노리 설치 작품 등도 평년 방문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물론 2025년 5월 문을 연 나오시마 신미술관은 약간 다를 수 있다. 나오시마라는 이름을 직접 붙인 첫

미술관인 데다 상설전 형태의 영구 전시를 해 온 기존 미술관과 달리 아시아에 특화된, 동시대 현대미술 작가 발굴과 전시에 중점을 둔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어서다. 이 말은 전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장은 일본,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출신의 저명 아티스트로부터 신진에 이르기까지 12명(팀)이 참여한 개관 기념전이 열리고 있다. 한국 대표 작가로는 서도호가 이름을 올렸다. 나오시마 현지 가옥의 복도를 일부 포함하는 등 장소 특색적인 작품이다. 나오시마 신미술관이야말로 전시 기획 수준에 따라 재방문자 발걸음을 가장 많이 끌어당길 것 같아 주목된다.

김은영 / 부산일보 부국장

고요를 품은 비상

11월 21일~30일, 갤러리 화인



서양화가 이인철

1992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재료의 다양성을 실험해 온 이인철 작가의 개인전이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갤러리 화인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흐르는 강물처럼'을 주제로,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 '쉬어감'의 순간을 담은 총 15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깊은 산속 홀로 명상하는 모습, 유유자적 한 가로이노 짓는 사람, 멀리 날아가는 새의 모습은 모두 내적 평화와 평온의 상징이다. 중·저 채도의 차분한 색감은 고요한 내면, 비움, 그리고 멈춰 서서 호흡하는 시간을 드러낸다.

대표작 <흐르는 강물처럼 I, II>은 새와 함께 강 위를 유유히 저어가는 모습으로 이번 전시의 전체 주제를 관통한다.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대각선의 구도로 배치하여, 흐르는 시간을 거슬러 천천히 쉬어 감을 찾는 삶의 여유

를 은유적으로 나타냈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새의 이미지는 '자유'와 '여유의 표상'이다. 인물이 배제된 풍경 역시 작가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서정적 소재를 통해 감정의 결과 깊이를 한층 깊게 확장하고자 한 도전이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 작가는 "내년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개인전에서도 소재를 제한 두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표현을 이어가고 싶다"며, 일상과 자연에서 얻은 감성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흐르는 강물처럼 II _72.7 x 53 cm, Mixed media on canvas, 2025.

색의 갈등에서 피어난 확장

12월1일~20일, 갤러리 라함



서양화가 류명렬

소나무 화가로 잘 알려진 류명렬 작가의 개인전이 갤러리 라함에서 열렸다.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그는 오랜 시간 소나무를 주제로 회화적 세계를 쌓아왔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그간 절제해 온 색과 재료를 확장한 신작과 소나무 연작 등 총 30여점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아크릴 물감의 농도와 작업실의 온도·습도, 작가의 감정까지 하나의 재료로 삼아 형태와 작품의 색을 결정하는 작업 방식이다. 새로운 소재가 더해진 신작에서는 과감히 색을 입히고 자유기를 반복해 보다 자유로운 회화적 움직임을 담아냈다. 작가는 이번 시도가 '색에 대한 갈등과 소재 확장에 대한 오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기존 소나무 표현의 깊이를 유지하면

서도, 색과 재료의 변주를 통해 작가가 지닌 현재의 회화적 에너지를 드러냈다.

특히 계곡 바위틈에 뿌리 내린 소나무를 구상

과 비구상으로 결합한 150호 대작은 거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을 이어가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이에 그는 "우리의 삶도 소나무와 다르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배경에서 색이 유평하듯 흐르고 사라지는 감각적 이미지들은 작품 속 추상성을 강화하며, 관객이 호기심을 품고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작가는 "관람객이 작품과 호흡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나무 _2.7 x 72x 7cm, acrylic on canvas, 2025.

황금빛 소나무로 비춘 마음

10월 29일~11월 18일, 갤러리 화인



한국화가 박정연

한국화를 기반으로 30여년간 '소나무' 세계를 확장해 온 박정연 작가가 제12회 개인전 '비춤을 갤러리 화인에서 개최했다.

박 작가는 1991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1993년 한·중 수교 기념 중국미술관 초대전에서 1000호 규모의 대작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동양철학, 음양오행, 한국적 미감의 본질을 탐구하며 소나무를 의인화한 회화 세계로 방향을 굳혔다. 2005년 안국선원 법당 벽화 작업에서 황금색 탱화 안료를 접한 경험은 회화적 전환점이 되어, 오방색의 '황(黃)'으로 풀어낸 '황금소나무' 시리즈가 탄생했다.

이번 전시의 주제 '비춤은 마음을 비추는 행위'이자 작가의 오랜 수행자적 태도를 담았다. 작품은 10호부터 700호까지 다양한 크기의

작품 11점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1992년 중국미술관에서 선보였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공개되는 약 700호 대작이 등장해 큰 주목을 받았다.

대표작 30호 <비춤>은 금분·은분과 먹이 어우러진 화려한 화면이 특징이다. 오랜 시간 밑그림으로만 남아 있다가, 이번 전시를 앞두고 완성된 이 작품은 불교의 '중도와 불이' 사상을 기반으로 "하늘·나무·땅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통합적 세계관을 시각화 했다. 작가는 즉흥적 먹의 호흡과 파라핀염색을 접목한 독창적 기법으로 수년간 이어온 황금소나무의 결을 새롭게 확장했다.



비춤 _79 x 37cm, 광목, 파라핀, 먹, 금분, 채색, 2025.

사라지는 붉은 섬, 남겨지는 기억들

11월 9일~19일, 디오티미술관



한국화가 유현욱

삶 속에서 연약하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작업을 이어 온 유현욱 작가의 개인전이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디오티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사라지는 붉은 섬'이라는 제목으로, 신공항 부지로 예정된 가덕도의 풍경을 기록하기 위한 작가의 지속적인 탐색을 담아냈다.

400호 대작 1점과 모듈 형식의 소품 60여 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작가가 2~3년 동안 직접 가덕도를 오가며 채집한 식물들로 만든 안료를 사용해 그곳의 풍경을 재현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곳의 식물, 바람, 새소리 등 현장의 생태를 채집해 재료로 변용하는 그의 작업 방식은 사라짐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오늘 의 흔적을 기록하려는 예술적 순환 구조를 보여준다.



사라지는 붉은 섬 가덕도 _170x390cm, 동백꽃의 동백꽃잎으로 만든 안료, 2025.

대표작 <사라지는 붉은 섬>은 가덕도 '100년 동백숲을 기반으로 한 작품으로, 무거운 동백꽃을 들고 산길을 내려오던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작가의 애정이 깊은 작품으로 꼽았다.

유현욱의 한국화는 자연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동양적 정신을 바탕에 두며, 개발의 명분 뒤에서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을 돌아보도록 조용하지만 단단한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사라지는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전하며 이번 전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욕망의 패턴, 감정의 직조

12월 2일~7일, 금련산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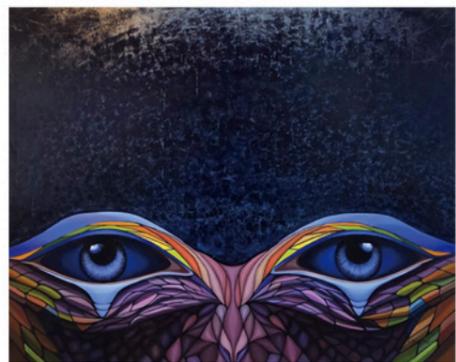


서양화가 이경옥

현대인의 내면을 관통하는 '욕망'의 정서를 자신만의 상상 세계로 풀어내는 이경옥 작가가 네 번째 개인전 '물들이다'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12월 2일부터 7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렸으며, 다양한 혼합재료와 평면회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작가의 작업세계는 일관되게 인간의 욕망과 의지를 중심에 둔다. 그는 "우리의 세계는 욕망과 감정, 기억이 만들어낸 경험의 집합"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사유를 작품의 철학적 바탕으로 삼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인이 갈망하는 세가지 상징인 안식처로서의 아파트, 풍요의 상징인 해바라기, 현실 너머로 떠나는 부영의 환상여행을 재해석해 유쾌하면서도 직관적인 이미지로 풀어냈다.

대표작 <보다>는 인간의 소유욕을 악어 피부의 촉촉한 패턴과 견고한 질감으로 표현한



보다 _162 x 130.3cm, Oil on canvas, 2018.

작품이다. 세계의 눈 군단을 통해 사회경제적 격차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불안의 감정을 시각화했다. 작가는 고전적 유화기법을 기반으로 하되, 재료의 폭을 확장시켜 감정 표현의 스펙트럼을 넓힌 작품을 선보이고자 했다.

신작 달항아리 시리즈는 "인간은 짜여진 직물에 갇혀 있다"라는 문장에서 출발해, 삶을 직조해 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시간이 빚어낸 결과 삶

11월13일~12월14일, 갤러리 재희



서양화가 김석훈

겹겹이 쌓인 재료와 층위의 관계를 탐색해 온 김석훈 작가의 개인전이 11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갤러리 재희에서 열렸다.

'시간 그리고 결과 겹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먹의 깊이와 색이 오랜 시간의 축적을 통해 완성된 듯 개인과 공동체의 '사람살이' 속에서 쌓여 온 결과 겹을 질서와 관계적 소통의 흐름으로 시각화한 작품 39점을 선보였다.

김 작가에게 '겹'은 변화와 리듬이 만들어내는 살아 있는 질서이며, '겹'은 그 겹들이 만나 이루는 관계의 구조이다. 이러한 개념은 자연의 순환과 반복, 사라짐과 다시 나타남을 포괄하는 윤희의 사유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그의 화면에서는 패턴이 무너지고 다시 형성되는 과정, 서로 다른 재료와 층위

가 교차하며 새로운 표정을 만들어내는 순환적 회화 구조가 나타난다.

이러한 작업세계는 분채·석채·호분·단청 안료 등 동양화

재료 위에 염색한 조각천을 서로 다른 농도와 색감으로 겹겹이 올려 구현했다. 특히 '겹' 연작에서는, 유성잉크 선 작업을 더해 호분과 철가루를 혼합하여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냈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품 같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의 작업은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결의 흐름과 관계의 겹을 포착했다.



마중가는 길 _130 x 130cm, 캔버스 위에 단청안료, 석채, 천, 혼합재료, 2024.

판(版)의 경계, 경계의 포구

10월 27일~11월 15일, 스페이스 원지

부산시, 부산문화재단의 우수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전시는 부산판화협회가 주최·주관한 '2025 글로벌 프로젝트#2 판의 경계, 경계의 포구'로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영도구 스페이스 원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사라져가는 '포구'를 주제로, 8개국 64명의 국내외 판화가들이 회화·설치·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채롭게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Think Globally, Act Locally'이라는 슬로건 아래, 예술이 지역성과 세계성을 잇는 플랫폼으로 육지와 바다,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 어민들의 삶을 비추며 소멸해가는 풍경과 기억을 다시 불러오려고 했다. 작가들의 시선은 지역의 이야기와 사라짐의 풍경 속에서도 생명력과 연대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바다와 육지,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흐르는 생명의 서사와 정체성을 직면하게 했다.



스페이스 원지에서 열린 '판의 경계, 경계의 포구' 전시도록 표지 및 전시장 전경.

제21회 부산연묵회 한국화전

11월 5일~10일,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

부산지역의 한국화 대가들이 함께 활동 중인 부산 연묵회는 2004년 창립된 이래, 올해로 21회째 정기전을 맞이하여 선·후배 회원 19명이 참여해 20호 크기의 작품 두 점씩 총 38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는 부산을 넘어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는 자리로, 연묵회의 오랜 발자취가 새로운 공간과 시선 속에서 다시 조명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더불어 다양한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공유하고, 한국화의 전통적 정신과 현대적 방법론이 교차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국화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나아가 이번 전시는 개별 작가의 기량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산 한국화의 정체성과 미학적 깊이를 타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계기로 앞으로 연묵회가 이어갈 예술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제21회 부산연묵회한국화전 단체사진 및 전시장 사진.

제32회 먹샘회 회원전

11월 12일~11월 18일, 한새갤러리

지난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부산교육대학교 한새갤러리에서 '제32회 먹샘회 회원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는 한국화의 전통과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자 9명의 작가가 함께 참여하여 총 45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1993년 창립된 먹샘회는 지난 부산갤러리, 서울 인사아트홀 전시회를 비롯해 수많은 전시를 통해 한 획, 한 점의 먹빛 속에서 예술의 온기와 향기를 더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장 회화를 시작으로 10호부터 400호까지 다양한 크기와 기법 속에서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펼쳐 보였다. 자연과 인간 존재에 대한 사유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다양한 표현과 기법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한국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먹샘회는 꾸준한 창작활동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실력을 다지고 회원 간의 교류와 공동작업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제32회 먹샘회 회원전 오픈식 회화 현장 및 단체 사진.

위기의 계절을 넘어-디그리쇼 2025

11월 28일~12월11일까지, F1963석천홀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디그리쇼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F1963 석천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14일간 개최되었다. 초창기 디그리쇼는 졸업전시회의 성격을 지닌 연합 전시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폭넓은 청년 예술인의 작품을 공모·기획해 선보이는 형태로 자리 잡으며 부산지역 예술계 대학생·대학원생, 청년 예술인들의 작품을 공모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연합전시회로 발전하였다.

이번 전시는 <위기의 계절을 넘어>를 주제로 총 37명의 지역 청년예술인이 참여했으며, 지역의 위기와 예술대학의 위기, 청년예술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미술에 활력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를 더했다. 전시 작품의 판매 수수료 없이 모든 수익은 청년 작가들에게 돌아간다. 디그리쇼는 지역미술에 활력을 찾고 향후 부울경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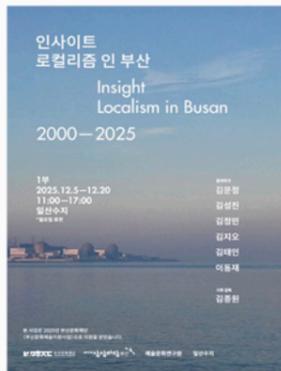
'위기의 계절을 넘어-디그리쇼 2025' 공식 포스터.

2000-2025 인사아트 로컬리즘 인 부산

2월 5일~20일 일산수지, 12월 31일까지 KT&G 상상마당

'2000-2025 인사아트 로컬리즘 인 부산'은 부산문화재단, KT&G 상상마당 부산, 예술문화연구원, 일산수지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김종원 미술감독이 기획했다. 전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1부는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일산수지에서, 2부는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에서 이어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2000년대 이후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미술인들의 작업계적을 재조명하고, 부산이 지닌 고유한 로컬리즘을 보다 감각적인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참여 작가들의 시각언어로 결합한 영상·설치 작품이 전시의 중심을 이루며 다층적인 구성 속에서 '지역성과 동시대성'의 접점을 탐구하고 이를 조명했다. 참여 작가로는 김문정, 김성진, 김정민, 김지오, 김태인, 이동재 작가가 함께 했다.



인사아트 로컬리즘 인 부산 전시 포스터.

제4회 사미회전

12월9일~14일, 금련산갤러리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 '제4회 사미회전'은 동문 간의 예술적 우정과 현대미술의 다양한 실험정신을 한자리에 모아 조망할 수 있는 전시로 진행되었다. 2012년 창립된 사미회는 당시 미술교사로 활동하던 송영명 교문을 모시고, 부산을 비롯해 전국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18명의 부산사대부고 출신 동문 작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회원들은 매년 정기전을 통해 한 해의 창작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새로운 작품제작의 방향성과 표현의 가능성을 함께 탐구하며 예술적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의 다양성 검토'를 주제로, 회원 각자가 1년간 준비해온 100호~150호 규모의 미발표된 작품을 선보였다. 서양화, 수채화,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각자의 개성과 철학을 공간별로 배분하여 연출함으로써, 형식과 주제를 넘어 예술을 통해 시대의 정서를 반영하는 예술의 본질적 역할을 다시금 일깨웠다.



제4회 사미회 전시도록 표지.

제41회 동맥회 정기전 개최

12월 16일~21일, 금련산갤러리

197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졸업동문전시회 '동맥전'이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2025동맥전-Connection'이라는 부제처럼, 동문들간의 예술적 맥을 잇는 의미를 담았다. 총 60명의 동문이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판화 등 20호 내외의 구상, 비구상계열의 평면작품 60점을 전시했으며, 이를 통해 선·후배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결속을 다지고 미술대학의 방향과 회화과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동맥회는 "동맥전은 오랜 전통 속에서 부산화단의 중요한 전시 발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며, "작가로 활동하는 동문들과의 활발히 소통하며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이 전시는 우리 동아인의 자긍심이자 자랑이다. 앞으로도 좋은 만남을 이어가며 더 큰 발전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제41회 동맥전 전시도록 표지사진

제15회 가마먹빛전 개최

12월 16일~21일까지, 금샘미술관

올해로 15회를 맞은 가마먹빛전이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금샘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계고사신(繼古思新)'의 사회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옛것을 잇되 새로운 것을 생각한 다'라는 정신 아래, 전통예술의 기반 위에 시대적 감수성을 더한 창작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회원들은 각자 2~3점의 작품을 출품하였고, 전시 현장에서 13명이 함께 단체 작품을 제작하는 특별 구성을 마련해 서예·문인화·서각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선보였다.

1997년 창립된 가마먹빛회는 부산지역에서 서예인들의 교류와 창작을 이어온 전통예술 단체로, 3년에 한 번씩 대작전을 개최하고, 그 외 기간에는 소품전과 학술대회를 열어 예술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매년 정기전을 통해 전통예술의 맥을 지켜온 가마먹빛회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예술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부산예술의 의미 있는 발자취를 새기고 있다.



제15회 가마먹빛전 전시도록 표지.

김지원 개인전 '유쾌한 아름다움-꿀무'
10.27-11.1 부평아트스페이스



한국화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김지원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꿀무'를 중심 모티프로 삼아, 분채, 펜, 한복, 광목천, 바느질, 폴라주 염색, 아이세도우까지 다양한 재료로 엮어낸 작품 17점을 선보였다. 작가는 비늘과 천 사이에서 손끝을 보호하는 작고 단단한 도구인 꿀무를 통해, 매일의 작은 수고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려는 여성의 의지와 반복되는 일상 속 자신만의 세계를 지켜내는 유쾌함과 운가를 그려냈다.

양석대 초대 개인전 '겹의 존재'
11.1-11.16 아트스갤러리



'기억·시간·감각'의 관계를 탐색해온 양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한층 더 깊은 사유의 층위를 드러냈다. 작가가 반복적으로 다뤄온 모티브인 '목마'는 유년기의 상장을 넘어, 삶의 순환적 리듬과 존재의 흔적을 드러내는 매개로 확장됐다. 또한, 캔버스 위에 쌓였다 지워지는 층위들은 고정된 의미를 거부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존재의 상태를 은유한다. 이는 곧 존재의 흔적을 더듬어 가는 작가의 사유를 시각화하는 장이 되어, 그 결속에서 자신만의 기억과 감각을 조용히 떠올리게 했다.

제13회 양홍근 개인전 '침묵의 소리'
11.6-11.18 이월갤러리



이번 전시는 바다와 고목이라는 두 상징적 존재를 통해 삶의 충격, 회복, 그리고 내면의 정적을 응시하는 전시였다. 작가에게 바다는 고등학교 시절 처음 마주한 변산의 바다에서 비롯된 기억으로, '처음 겪어보는 친숙함 생소함'을 남긴 원초적 경험의 장소이다. 당시의 바다는 감정과 감각이 처음으로 깊이 각인된 지점으로 작가의 내면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기억 속에서 축적된 풍경은 이번 전시의 정서적 중심을 이루며, 고목은 그 곁을 묵묵히 지키는 또 하나의 침묵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박동채 개인전 '바람의 곁'
11.11-11.20 피카소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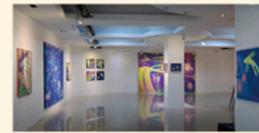
박 작가는 달팽이와 토끼를 소재로 하여 자연 속 고요하지만 강한 삶의 움직임 만들어내는 상징적 요소로 드러내며,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중 행복·슬픔·고요함·생명의 순환 등을 시각화해 자연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감각적 소통을 탐구해왔다. 이번 전시는 바람이 스쳐 남기는 미세한 흔적을 존재의 표면과 삶의 궤적에 비유해 보이지 않는 '바람의 곁'을 화면에 담았다. 판화 기법 위에 드로잉과 채색을 더해 중첩되는 재료와 질감의 대비, 섬세한 선과 역동적인 터치로 매체의 경계를 확장했다.

신홍직 초대전
11.13-11.29 미광화랑



이번 전시에서는 신홍직 작가가 오랜 시간 탐구해온 조형 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평면작품을 선보였다. 자연과 대상의 실제 형태와 색채를 과감히 표현하고, 화면 속 추상적으로 어우러지는 우연성과 즉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감 덩어리를 나이프와 손으로 속도감 있게 칠한다. 형식적 강박에 벗어나 마구 칠해진 듯한 물감의 흔적, 부조를 보는 듯한 질감으로 색과 형태가 진동하고, 구상과 추상의 미묘한 경계 속에서 폭발하는 카타르시스를 보는 이로 하여금 전달한다.

김남진 초대전 'Co Ra ; 우주토끼의 팽창'
11.15-12.14 갤러리 아트쇼



이번 전시는 25년 넘게 이어온 김 작가의 고유한 회화방식과 캐릭터적 상상력이 다시금 힘을 얻어 확장되는 자리였다. 1996년 등장했던 '우주토끼'는 귀와 팔다리가 거의 같은 길이로 단순화된 형태로, 둥근 마디와 몽툰한 실루엣을 지녔다. 2023년 재탄생을 거쳐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도약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으로 작가의 작업세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자립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Co RA'로 이름으로 팽창하는 존재로 변주되어 관객과 마주했다.

2025 울주아트 지역작가 초대전 '김응기'
11.18-11.29 울주문화회관 채움갤러리



현실의 사물이나 자연 이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그의 사유와 겹쳐진 심상을 그려낸 김작가의 초대전이 열렸다. 작가는 그동안 축적해온 기억의 곁을 자연·사물·기호로 재배열함으로써, 현실과 심상의 경계가 맞물리는 독특한 시각적 언어를 구축해왔다. 초기 작업에서 보이던 텍스트와 사진, 기호 등의 원초적 층위는 이번 전시에서 더욱 정교한 조형적 요소로 확장된다. 작품은 각 층위가 쌓여 하나의 시적 구조를 이루듯, 자연이 지닌 의미와 인간의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흐름을 유기적으로 반영한다.

오정선 도예전
11.21-11.27 부산갤러리



오 작가는 흙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물질을 통해 자연의 생성과 순환,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원을 탐구해온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 그가 추구해온 '생명력의 형상화'가 한층 응축된 '구체'로 드러났다. 흙이라는 전통적 재료를 넘어서 생명·우주·자연의 본질을 사유하게 하는 조형적 탐구의 장이며, 생성과 소멸, 확장과 수축을 거듭하는 자연의 생명력 그 자체에 대한 은유였다. 기표 없이 부유하는 오브제들은 관객에게 기능이 아닌 감각을, 이해가 아닌 체험을 요구하며, 우리 안의 원초적 기억을 조용히 두드렸다.

전두인 초대전
11.22-12.1 광복화랑



'잃어버린 꽃'을 화두로 삼아 현대인의 내면을 탐구해온 전두인 작가의 25번째 개인전이 광복화랑의 초대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래 다뤄온 주제가 더욱 심화된 모습으로 펼쳐지며, 화면 전면에 등장하는 꽃의 형태와 색채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서와 감성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이탈된 듯한 꽃의 이미지는 물질적 가치가 중심이 된 시대 속에서 점차 멀어져 가는 순수 그리고 잃어버린 이상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를 되묻게 한다.

제17회 최영근 개인전
11.24-11.30 타워아트갤러리



역사 속 시간과 공간의 흔적을 현대적 시선으로 재해석한 최영근 작가의 개인전이 '역사산책'이라는 부제로 열렸다. 전시는 고대 가야를 중심으로 신라와 고려시대까지 확장하며, 각 시대의 삶과 설화를 현대 미술의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바다의 배경과 유물의 이미지는, 역사적 진실과 미지의 세계를 암시하며, 작가는 직접 수집한 자료와 탐구를 바탕으로 고대의 흔적을 오늘의 감각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

곽태임 개인전 'Home_Where the Light Stays'
11.25-12.3 이젤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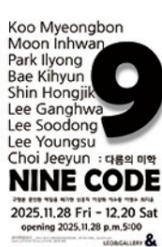
곽 작가는 오랜 시간과 역사의 흔적이 켜켜이 스민 벽지와 종잇조각들을 콜라그래피 판화 기법으로 재조합하여, 낡은 물성과 파편화된 기억을 새로운 표면과 이미지로 되살려 냈다. 한 시절을 지나온 질감은 작가의 손을 거쳐 전혀 다른 형상과 감정으로 전환되고, 그 과정은 시간의 무게와 언어를 새로이 부여받은 또 하나의 서사로 확장되었다. 시간의 흔적이 품은 이야기들은 역사·일상·예술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잇는 다리를 만들며, 사물이 품고 있는 기억의 층위와 잠재된 생명력을 직관적으로 체감하게 한다.

서유정 초대전 '온전한 귀환 역설의 창'
11.27-12.19 아리안갤러리



서작가는 사회적 침묵과 개인의 상흔이 남긴 균열을 회화적 지층으로 드러내며, 보이지 않는 진실이 어떻게 이미지로 재구성되는지를 탐구했다. 그는 지워지고 배제된 존재의 파편을 낱설게 호출하고, 색채와 질감을 통합하듯 쌓아 올리며 '귀환'이라는 주제를 다층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화면 속 불완전한 재현은 우리가 다시 마주해야 할 진실의 자리를 환기시키며, 허구적 왜곡과 파편의 배열을 통해 감정의 지층과 그 틈을 통해 기억을 다시 사유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나인코드:다름의 미학
11.28-12.20 레오앤갤러리



이번 전시는 아홉 명의 작가들이 모여 '다름'이라는 가치가 지닌 힘을 하나의 전시로 펼쳐냈다. 각기 다른 색깔과 선, 조형적 언어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긴장과 울림 속에 새로운 영감과 질문을 건넨다. 참여 작가는 구명본, 문인환, 박일용, 배기현, 신홍직, 이강화, 이수동, 이영수, 최지윤 총 아홉 명으로, 이들의 작업은 '다름의 미학'을 통해 고유한 언어로 이야기를 건네며, 그 다채로운 목소리들이 함께 새로운 미적 지평을 구성했다.

제6회 서수연 개인전 'PROMPT: CODE OF EMOTION'
12.1-12.6 부평아트스페이스



'PROMPT: CODE OF EMOTION'은 작가가 수행해온 감정의 시각화를 작업을 이미지 생성형 AI와 결합해, 감정이 언어 코드에서 이미지, 그리고 작가의 손길을 거쳐 작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탐구한 전시였다. AI는 감정을 번역하는 시각적 매개로 가능하고, 작가는 그 결과를 위에 인간 특유의 감각과 정서를 덧입혀 작품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인간 감정을 디지털 언어 구조 안에서 다시 사유하는 실험이자, 기술과 감성이 만나는 새로운 회화적 접근을 제시했다.

한국 김상지·대만 오숙진(吳淑眞) 서예 2인전
12.2-12.7 부산시민회관 1층 전시실



부산을 대표하는 서예가 도홍 김상지 작가와 대만의 저명한 서예가 오숙진(吳淑眞) 작가는 2021년 SNS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와 환경 속에서도 예술이라는 공감과 언어로 신뢰를 쌓으며 인연을 맺었다. 절제된 여백의 미와 문자 속에 깃든 수천 년의 철학, 삶의 고투는 양국의 다른 미학적 다양성과 정신적 깊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시장에 걸린 작품들은 한 점, 한 획마다 인간의 호흡과 수양, 인격의 깊이를 담고 있는 서예의 진수를 보여주며 양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생생하게 전했다.

정주야 개인전 '자연은 리듬을 타고'
12.15-12.21 부산진구청 백양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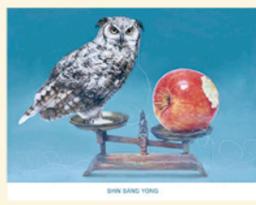
정 작가의 회화는 자연의 풍경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대신, 작가가 감각의 단계에서 받아들인 세계의 촉감이 회화적 리듬으로 전환되어 화면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재현의 이미지가 아니라, 자연과의 감각적 접촉이 남긴 흔적에 더욱 가깝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듯한 선의 유동성, 무심하게 흘러내린 듯 보이거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색의 층위, 그리고 반복되는 덧글미와 지움의 행위는 모두 직관이라는 공통된 리듬으로 묶여있다.

제3회 일 퍼센트 정기전
12.16-12.20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재능의 1%라도 사회와 나누고자 활동해온 '일 퍼센트'가 세 번째 정기전을 열었다. 회원 20명과 초대작가 12명이 참여해 평면과 입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해 수채화 수업을 진행했으며, 그중 12명의 작품이 이번 전시와 함께 '조화의 대화'라는 부제를 더욱 의미 있게 했다. 서로 다른 색과 표현이 한 공간에 펼쳐지며, 예술을 통한 나눔과 소통이라는 창립 취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제21회 신상용 개인전 '소비사회의 재구성'
12.16-12.21 석당미술관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이상적 오브제들을 낱설게 재배치하며, 우리가 무심히 받아들여 온 가치 판단의 체계를 다시 질문하게 했다. 작품은 단순한 상징의 범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재고 있는 것은 진정한 가치인가, 아니면 욕망의 잔재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상징과 오브제, 오래된 장치와 현대적 감수성을 한 화면 안에 정교하게 교차시키며, 가치와 욕망이 뒤섞인 사회적·문화적 매커니즘을 드러냈다.

회원님의 전시소식을 기다립니다

부산미술은 부산미술협회 회원님들과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격월로 월초에 발간되는 부산미술은 회원님들의 귀중한 전시소식을 기다립니다. 마감기한은 발간 전 월 15일까지 전시소식을 부산미술협으로 보내주시면 다음달 발간되는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bfaa2015@hanmail.net : 전시명, 작가명(단체전일 경우 참여 작가명단), 전시기간, 갤러리명, 연락처, 작품 이미지(저화질 게재 불가/파일 제목 캡션 필수), 기획내용 및 특징, 작가의 생각을 담은 작가노트 A4용지 1장 또는 1/2 분량]

아시아 동시대의 현대미술교류전'일상의 전환 in 후쿠오카

글. (사)부산미술협회 이사장 최장락

부산미술이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국제적 흐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는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과제이다. 그동안 해외자매도시를 중심으로 미술교류전이 꾸준히 개최되어 왔으나, 초청 형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교류와 기획의 확장에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부산미술이 글로벌(Global+Local)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상호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 아래, 아시아 동시대 현대미술의 흐름을 현지 작가들과 직접 교류하며 살펴보고자 기획된 전시가 '아시아 동



왼쪽) 부산시립미술관 정종호 학예실장과 사)부산미술협회 최장락 이사장 발제 사진. 오른쪽) 후쿠오카 카페 갤러리 교정 건물 앞에서 요시다 대표와 최장락 이사장이 함께한 발제 사진.

시대의 현대 미술교류전-일상의 전환 in 후쿠오카이다. 이에 '바다를 넘어선 예술적 유대가 새로운 창조를 이끈다'는 가치를 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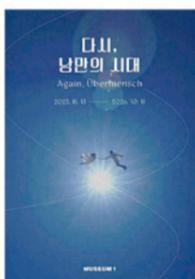


스트 카페 후쿠오카에서 특별강좌가 열렸다. 이날 강좌에는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실장과 부산미술협회 이사장과 함께 참여해

으로, 이번 교류전은 일본 Arista Cafe Fukuoka 'ACF' 아카데미와 협력해 진행되었다.

전시와 연계하여 2025년 11월 1일(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아티

한국 현대미술의 동향과 주목할 만한 작가 및 작품, 부산과 후쿠오카가 쌓아온 미술교류의 역사와 현재의 노력, 부산미술협회의 활동, 그리고 두 도시 간 문화적 연대가 만들어낼 새로운 창작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아울러 부산미술협회의 활동과 교류 방향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교류전에는 레오 김, 박선민, 성현섭, 유선경, 이상봉, 정상지 등 6명의 부산 작가가 참여했다. 작가들은 작품 운송비를 자부담하며 교류의 의미에 공감했고, 전시는 2025년 10월 29일(수)부터 11월 3일(월)까지 아티스트 카페 후쿠오카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 속에 내재된 '일상'의 의미와,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표현 세계를 일본 현지에서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로, 동시대 아시아 미술의 접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5.11.15-10.11 다시, 낭만의 시대 뮤지엄원



2025.11.29-3.22 '2025 부산현대미술관 플랫폼 나의 집'이나 부산현대미술관



2025.12.1-1.28 시선의 조각 청년청초발전소



2025.12.2-1.20 안성하 개인전 'The Still Point of Seeing' 소울아트스페이스



2025.12.3-4.4 시민의 빛, 부산에서 떠오르다 민주공원 집은필처보임방



2025.12.5-1.11 'Warm Winter Gifts'전 메종드카린



2025.12.5-1.11 이상엽 개인전 'FUTURE, POWER, TIME' 카린갤러리



2025.12.6-1.16 정지숙 개인전 'Dopamine Fam' 갤러리 플레이리스트



2025.12.9-3.2 '금고, 커넥티드' 금고미술관



2025.12.15-1.15 배지윤 개인전 '명명하기' 영영



2025.12.18-1.31 권소영, 손정기, 한재혁 3인전 '고요한 장막' 오브제후드



2025.12.23-1.22 서은경 개인전 'Romanic garden, Christmas' 레오엔제이갤러리

부산갤러리 전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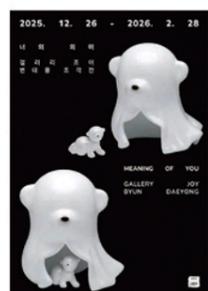
인사아트 부산갤러리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후원하고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가 운영하는 전시공간입니다.



2025.12.31-1.12 용두산부평입주작가전



1.14-1.26 제13회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최우수청년작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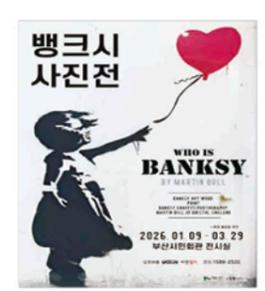
2025.12.26-2.28 변대용 조각전 '너의 의미' 갤러리조이



2025.12.23-1.17 작은 감응들 아트스향



2026.1.2-1.19 '이영 한국화 초대전' 이비나인 갤러리



1.9-3.29 뱅크시 사진전 'Who is Banksy?'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1.11-1.18 운암 정창환 개인 서화전 부산시청 3전시실



2.2-2.13 묵담회 한국화전 이비나인 갤러리

부산미술 등록번호 부산남.라00005

- 발행인 : 최장락
- 발행처 : 사)부산미술협회
- 편집위원 : 김성현 · 김종원 · 정연은 · 진수아 · 신현정
- 편집기자 : 김은비
- 주소 :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402호
- Tel. 051) 632-2400 Fax. 051) 644-4183

■ 한국화 부문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한문/영문),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Korean painting section.

■ 서양화(구상) 부문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한문/영문),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Western painting (figurative) section.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한문/영문),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Western painting (figurative) section.

■ 서양화(비구상) 부문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한문/영문),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Western painting (non-figurative) section.

■ 조각 부문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한문/영문),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sculpture section.

■ 판화 부문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한문/영문),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printmaking section.

■ 공예 부문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한문/영문),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craft section.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한문/영문),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craft section.

■ 목칠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한문/영문),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woodcut section.

■ 금속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한문/영문),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metal section.

■ 섬유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한문/영문),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textile section.

■ 기타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한문/영문),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miscellaneous section.

■ 디자인 부문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한문/영문),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design section.

■ 학술평론 부문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academic review section.

■ 수채화 부문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한문/영문),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watercolor section.

■ 민화 부문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traditional Korean painting section.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traditional Korean painting section.

■ 불화 부문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성명, 명제, 입상. Lists artists and their works in the Buddhist painting section.

* 본 간행물은 2026년 부산광역시비를 일부 지원받아 제작합니다.